아내와 나는 동갑내기 부부로 올해로 34살이다.

32살 때 지금 다니던 통신회사에서 기업체 미팅에서 아내를 만나 연애를 하고 6개월만에 결혼에 골인했다.

결혼 후에 딸이 태어났고 지금은 2살이다. 딸은 천재라도 되는냥 옹알이도 하면서 말을 알아듣는 것 같다

아빠라고 부른지가 엊그제인 것 같은데 말이다

아내와 나는 딸의 영재 교육을 위해서 영어동화와 동화, 애니메이션을 들려주기 위해서 ‘너는 나의 친구’라는 인형극 패키지를 구매했다.

2살의 외동딸이 있는 34살의 동갑내기 부부, 아이의 부모님은 출근으로 인해 바쁜 아침을 보내고 있었다. 조금 뒤에 가정부가 집에 오겠지만 그 사이에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이 없는 것이 불안했던 아이의 엄마는 지난번에 산 너는 나의 친구를 떠올린다. 급하게 부부가 같이 출근하고 아이는 너는 나의 친구가 있는 방에 남겨진다. **엄마는 출근하면서 인터넷에 접속해 너는 나의 친구를 작동시키고 (인터넷 필요, 원격 전원/설정 제어)** 아이가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틀고 바쁜 일상을 시작한다.

그 날 저녁 집으로 퇴근한 부부는 그 날 갑자기 찾아오신 아이의 친할머니께 아이를 맡겨두고 밀린 집안일을 분담하기로 한다. 할머니는 너는 나의 친구를 보고선 “이게 무어야?” 하면서 관심을 가지신다. 설명서를 읽어도 잘 이해가 가지 않아 아이의 아빠에게 물어보니, “아! 그건 저 기계 전원을 켜고 핸드폰으로 접속해서 이야기 틀어주시면 돼요!” 라는 간단한 설명만 하고 마저 자기 일을 하러 간다. **어찌저찌 접속까지 성공한 할머니, 그러나 복잡한 설정에 눈이 핑핑 돌아 이내 포기하고 만다.(간소화된 설정)** 그 순간 할머니 눈에 아이가 스피커를 입에 물고있는 모습이 보였다. **할머니가 “아이구 이런거 지지야!” 하면서 할머니가 뒤늦게 제지했지만 스피커는 이미 제 기능을 하기에 글러보였다.(아이가 마구 가지고 놀아도 고장이 안나야 함)**

이 때 찾아온 옆집 동화작가 아줌마, 4살짜리 남자아이를 데려왔다. 평소에 자주 너는 나의 친구를 자주 듣는 남자아이, 남의 집에 놀러와서도 그걸 틀어달라고 떼를 쓴다. 그래서 아줌마는 할머니에게도 사용법을 알려줄 겸 부부의 허락을 받아 //너는 나의 친구를// 틀어주려는데, **이런 웬걸 두 아이가 원하는 이야기가 서로 달라서 무엇을 틀어줘야 할지 곤란하다.(아이가 둘 이상일 떄)** 게다가 남자아이는 등장인물이 1**0명이나 있는 이야기를 틀어주길 원하고 있다.(스피커가 역할에 비해 적을 때)** 아줌마는 어쩔 수 없이 남자아이를 어르고 달래서 다른 이야기를 튼다. 근데 이 까탈스러운 **남자아이는 이야기가 너무 질려서 다른 이야기를 듣고싶다고 또 떼를 쓴다.(사용자의 이야기를 공유)** “이거 말고 다른거 틀어줘!!!" 평소에 너무 많이 틀어준 것이 화근인 것이다.[똑 같은 이야기를 계속 틀어주어 금방 질림] **아줌마는 “내가 만든 이야기도 틀 수 있으면 참 좋을텐데…”라고 생각한다. (음성이나 텍스트를 자동으로 대본으로 변환)** 하는 수 없이 동화작가 아줌마는 아이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부부는 집안일을 마치고 폭풍 같은 하루가 지난다….